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무회의의 의결 및 7월 동향

리더 메시지



김한석 센터장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7월 Newsletter』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와
『2025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의
규제 동향을 담았습니다.

또한,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ESG 통합 거버넌스』와
센터 접수 질의 사안인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미비점 관련
지배기구 점검사항』을 수록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를 오픈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15일 국무회의 의결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 공포 후 즉시 시행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
- 이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함

2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 공포 1년 후 시행

-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 **의무선임비율 상향 조정** (1/4 → 1/3)

3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 강화 ☞ 공포 1년 후 시행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

4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 2027.1.1.부터 시행

- 상장회사는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 개최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 의무화**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금융감독원은 '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사전 공표

☑ 투자자 약정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 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

☑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전환사채 관련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 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

☑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유통업, 제조업)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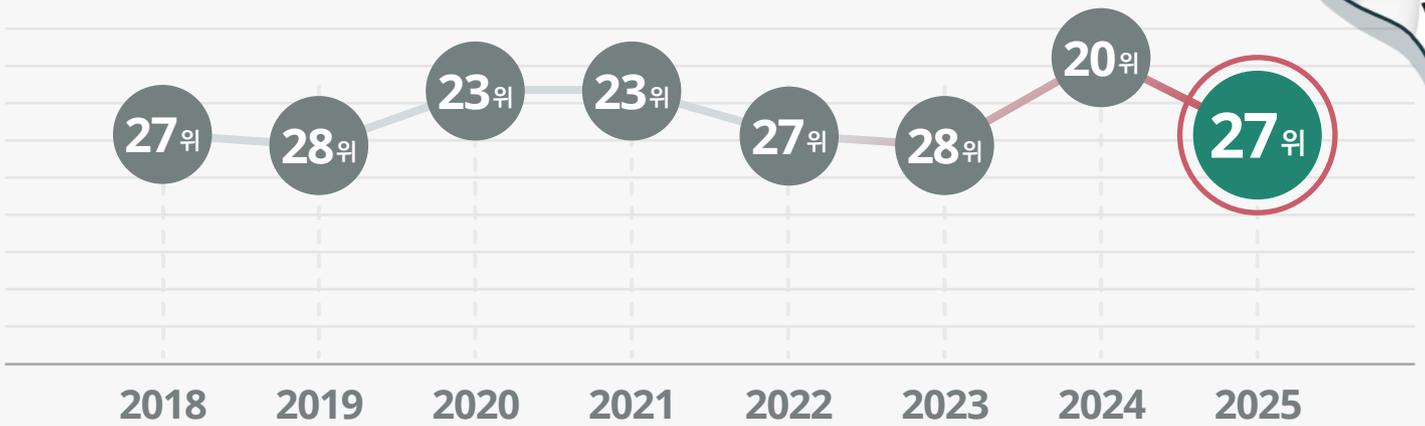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충실한 손상검토 수행

2025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 69개국 중 27위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 순위 대폭 하락에 7계단 하락

IMD 국가경쟁력 한국 순위



기업경영·지배구조 관련 주요 순위

기업효율성 분야

23위



44위

21위 ↓

⚠️ 종합순위 하락 견인

경영관행 부문

28위



55위

27위 ↓

⚠️ 경영·지배구조 관련 전반 지표 대폭 하락

↳ 회계감사 관행 (회계투명성)

41위



60위

19위 ↓

↳ 이사회 구조

63위



66위

3위 ↓

2024

2025



* IMD 국가경쟁력 평가 구성: 4대 분야, 20개 부문, 337개 세부항목

ESG 통합 거버넌스

이사회는 경영진의 ESG 전략과 실행체계를 감독하고, 명확한 책임 구조와 성과관리 기반을 갖추도록 요구해야

ESG 통합 거버넌스의 4대 핵심요소 및 이사회 감독 포인트



감독 구조



- 경영진의 ESG 리스크 대응 및 전략적 접근 방식 점검
- ESG 목표, 책임 주체 및 KPI 기반 성과관리 체계 마련 여부 감독
- ESG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거버넌스 성과지표* 도입 여부 확인

*이사회 다양성, 소액주주 평등 대우, 이해관계자 참여 등

보상 구조



- ESG 목표가 경영진 보상에 연계되어 있는지 감독
- 보상설계의 객관성, 산업 기대치·경쟁요소 고려 여부 점검
- 맞춤형 보상지표 또는 ESG 연계 평가 체계 구축 여부 검토

규정 및 리스크 관리



- ESG 전략 및 KPI 등을 경영진 주관 워크숍을 통해 점검·질의
- ESG 관련 법규 모니터링 체계 및 내부자료 기반 마련 여부 점검
- 환경·사회 리스크관리(ESRM) 규정 수립 여부 확인
- 전사리스크관리(ERM) 체계에 ESG 리스크가 통합되었는지 감독

투명성 및 책임성



- ESG 성과 및 목표 달성 현황의 정기 공개 여부 점검
-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 및 의견 수렴 체계 구축 여부 점검
- 외부기관을 활용한 중요성 평가 및 ESG 격차 분석 기반의 신뢰성 있는 공시 전략 수립 여부 감독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미비점 관련 지배기구 점검사항

Q. 금융당국이 실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드러난 주요 미비점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나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주요 미비점*과 지배기구 체크포인트

✓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책무 배분 기준 상이

사례 예시 각자대표 체제에서 책무 배분 기준이 불명확해 실무 혼선 초래

지배기구 점검사항

- 배분기준이 전사적 성격·업무 중요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됐는가?
- 대표 간 역할과 책무 간의 정합성이 확보됐는가?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소지

사례 예시 동일인이 내부통제 보고와 감독 수행 시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지배기구 점검사항

- 겸직 불가피 시, 사외이사 중심의 내부통제팀 운영체계가 마련됐는가?
-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가?

✓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

사례 예시 책무가 하위임원에 편중되거나, 중복배분 시 내부통제 효과성 저하 우려

지배기구 점검사항

- 상위 임원의 책임 회피 구조는 아닌가?
- 보고체계와 책무 배분이 일치하는가? 책무별 중요도 정합성이 확보됐는가?

✓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

사례 예시 비상임이사나 전결권 없는 사내이사 등이 배분 누락되는 사례 발생

지배기구 점검사항

- 실질적 영향력 있는 모든 임원이 책무 대상에 포함되었는가?
- 임원 자격요건(전문성, 경력 등)에 대해 사전 검토·보고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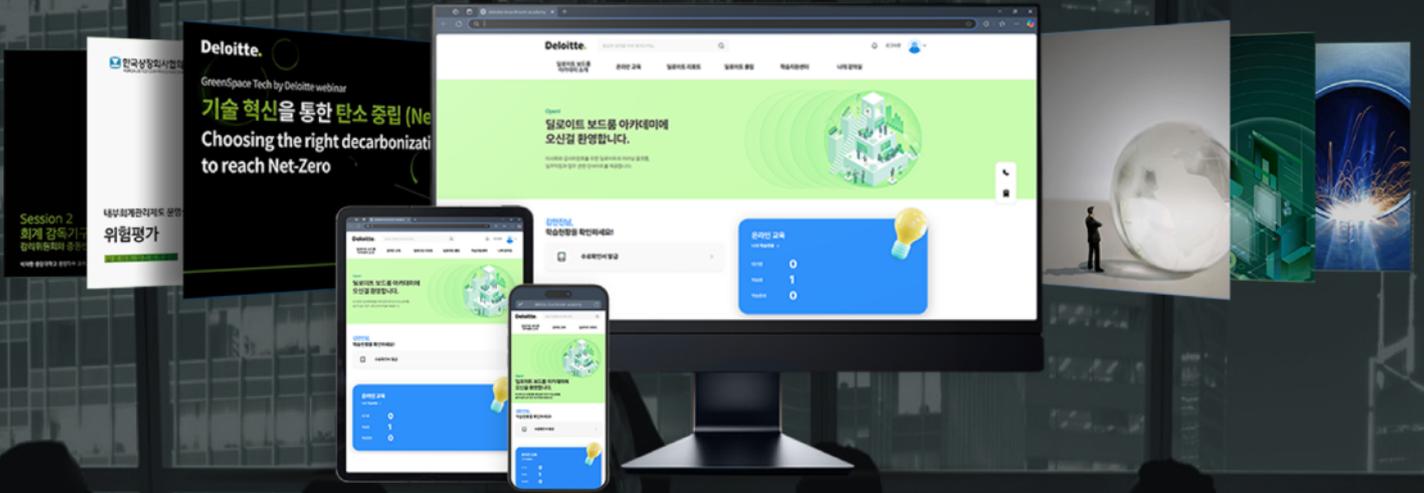
* 금융감독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2025.05.27.

이사회·감사위원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 오픈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딜로이트 클립



사외이사님, 감사위원님과 감사님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딜로이트의 전문가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종합한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를 오픈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사회·감사위원회를 위한 맞춤형 핵심 아젠다 제공
(기업 지배구조, 재무보고, 자금사고 방지 등)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클립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PC와 모바일을 통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운 학습



공시용 수료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전문가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 파트너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학범 파트너

Strategy, Risk & Transactions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유민지 파트너

Audit & Assurance

@ minjyoo@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krccg@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김한석 Partner
hansukim@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